

'세월호 참사 의무위반' 파면 사안 안돼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참사 때 성실한 직무수행 못해" 보충의견

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모아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탄핵소추안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관심을 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성실의무 위반은 성실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자유 침해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가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해서도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전 과정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



헌재의 결정 지난 10일 도청 집무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TV 생중계를 보며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탄핵이 인용되자 송하진 도지사가 실국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이수(64·9기),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

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러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재용 기자

친박단체, 경찰과 격렬 충돌 사상자 속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친박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였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에서 탄핵반대집회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도한 탄핵반대 시위대는 오전 11시24분부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이 알려지자 헌재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집회를 진행하던 탄기국 측은 탄핵 발표 이후 "헌재로 쳐들어가지" "뒤쪽은 청와대로 진격한다" "돌격, 우리가 접수하자"고 외쳤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대가 돼 안국역 사거리 헌재 방향, 청와대 방향으로 몰려가면서 안국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집회 현장 인근에는 경찰이 세운 차벽이 있었다. 시위대는 경찰 버스를 부수거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어려 시도했다.

일부 시위대는 안국역 내부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나무 막대기나 철봉을 휘두르면서 경찰을 폭행했다.

안국역 헌재 방향 출구 인근에서도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대치와 충돌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는 동안 탄기국 측 연단에서는 "돌격" "돌격"을 연호했다.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낮 12시15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김모(60)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팔레 숨졌다. 또 시위대 김모(70)씨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시50분께 안국역 사거리에 배치된 경찰 차벽을 넘어려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탄기국 연단에서는 군가를 점차 크게 틀면서 대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단에 선 사회자는 "명령에 좀 따르라. 버스를 넘겨야 할 것 아니냐. 따지지 말고 빨리 가라. 버스 넘기고 그 다음에 돌격이다"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시위대는 지속적으로 헌재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부수고, 차벽을 밟로 끌어당기려 했다. 아울러 돌과 철봉, 생수병 등을 경찰 측에 던지면서 전진을 시도했다. 시위대가 던진 물건에 맞아 피를 흘리는 등 다수 경찰이 부상했다.

이들은 시위 중간 연좌하면서 경찰을 상대로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시위대 사이에서는 "평화시위를 하는데 왜 막느냐" "여자들이 앞으로 오라" 등의 말이 오갔다. 연단 위에서 한 남성이 합복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시위 양상이 격화되자 오후 2시21분께 캅사시신을 살포하면서 제압에 나섰다. 경찰과 시위대는 수문회관 인근에 설치된 탄기국 연단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인근에 57개 중대 약 4600여명을 배치했다. /뉴시스

바른정당, 지도부 총사퇴...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10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고위원들도 동참하면서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 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간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살신성인으로 어렵게 모든 것을 비우는 마음으로 사임했다"며 "함께 한 의원들 모두 그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항후 지도부 체제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지도부 체제 공백이 있으면 안 되므로 주호영 원내 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정병국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권위 시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지도부 총사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박 대통령 파면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

전북 시민·사회단체, "시민 촛불혁명 승리 이끈 새로운 발자취 남겨"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2개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새롭게 열어젖힌 국민의 힘은 실로 위대했고

시민의 촛불은 더욱 아름다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는 오늘 국민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책임을 이유로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우리 국민은 3·1만세운동과 4·19혁명, 6월 민주항쟁에 이어, 시민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끈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발

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을 농단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국민들은 나 이와 성별, 직업, 계층, 지역의 차이를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원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을 계기로 벼랑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로 지탱되는 불공정한 사회를 끝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고 공정하고 공명한 원칙이 작동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근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